

도시 보행자가로의 체험에 있어서
'어반픽처레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덕수궁길, 인사동길, 명동길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재* · 김한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Picturesque'
in the Experience of an Urban Pedestrian Street
- A Case of the Duksugung-gil, Insadong-gil and Myoungdong-gil -

Kim, Young-Jae* · Kim, Han-Bai**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Picturesque Style of the 18~19th Century Romantic landscape gardening had features of both irregularity and variety. These features were applied to 19~20th Century urbanism, which was called 'Urban Picturesque'.

Preceding research has found that pedestrians take more interest in streets modeled after 'Urban Picturesque' principles mainly focused on physical appearance. Further development of this research was undertaken through an experiment focused on pedestrian activity as well as physical factor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Duksugung-gil, Insadong-gil and Myoungdong-gil.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Although the physical conditions of the street in Duksugung are fitted more on Urban Picturesque principles than the other two case studies, the degree of pedestrian interest was highest for the street in Insadong due to excellence both in physical appearance and the diversity of cultural activities available in it.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o achieve the full effect of a Picturesque urban scene, a diversity of place-appropriate activities related to socio-cultural programs should be combined with an excellent physical appearance.

Key Words: Degree of Pedestrian Interest, Physical Appearance, Activity

Corresponding author: Young-Jae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Tel.: +82-2-2210-5034, E-mail: yjkim@uos.ac.kr

국문초록

불규칙성(irregularity)과 다양성(variety)을 특징으로 한 18세기 낭만주의 조경의 픽취레스크 미학은 19세기 도시 가로형태에 적용되어 '어번픽취레스크(Urban Picturesque)'라는 개념으로 불리게 된다.

선행연구가 가로의 어번픽취레스크 특징 중 물리적 형태에만 국한하여 보행체험의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보려 했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의 양대 인자를 보행흥미도를 결정하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서울의 보행자중심 가로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에 따른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시 가로설계에서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증적 조사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덕수궁길이 물리적으로는 픽취레스크한 특징을 더욱 많이 갖추고 있었음에도 실제의 보행흥미도에서는 인사동길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인사동길이 덕수궁길에서 보이는 가로의 다양한 형태변화의 속성과 명동길에서 보이는 다양한 활동적 측면의 요소, 그리고 가로의 독특한 분위기 등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가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써 도시환경의 물리적인 형태와 활동적인 요소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로의 보행체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현대 도시의 보행자가로에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이 이용자에게 보다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물리적 형태와 더불어 각 가로상황에 맞는 활동적 측면이 활성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보행흥미도, 물리적 형태, 활동적 측면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설계적 측면에서 볼 때 도시 내 가로공간은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연속된 공간이며 구성요소의 집합체라기보다는 총체적인 경험의 공간이다(Halprin, 1986). 가로공간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도보행위가 아닌 주변 환경과 시각적,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공간에 흥미로움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행은 단순한 이동의 수단을 넘어서서 도시공간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신체적 체험이다(김화영, 2002)¹⁾.

도시 보행자 가로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관련 요소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건축물의 스케일과 가로 폭, 가로의 형태 등과 관련된 물리적인 측면은 가로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적 환경을 중시하는 만족스러운 보행환경의 구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유럽 중세 도시의 형태와 18세기 경험주의로부터 비롯된 픽취레스크한 경관디자인의 특성을 도시 가로에 적용하려는 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Issacs, 2000; Carmona, 2003). 도시환경설계의 양식에 있어서 동서양을 통틀어 구분될 수 있는 공간형태의 양대 양식 중 하나는 합리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기하학적, 정형적 양식이고, 또 하나는 경험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 유기적, 비정형적 양식이다. 전자는 유럽의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도시공간, 중국의 장안과 북경의 도시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고 기념비적 규모와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후자는 유럽과 동양 중세의 자연발생적인 도시들 및 19세기 이후

영국과 미국의 일부 상업가로와 주택단지에 나타나는 유기적 도시설계 사례들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소규모 도시공간에서 친밀하고 변화 있는 경관구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김한배, 1998). 후자의 경우 영국 18세기 조경양식인 픽취레스크에서 유래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환경미학 이론들과 연계된 픽취레스크 미학은 최근 '어번픽취레스크(Urban Picturesque)²⁾' 개념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이라 함은 도시를 체험하는 보행자로 하여금 흥미로운 경험을 불러 일으키는 경관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Issacs, 2000). 이러한 개념의 연구는 멀리 도시설계 이론의 원조인 Camillo Sitte(1889)까지 소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번픽취레스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제 도시환경에서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예는 최근 Raymond Issacs(2000)의 연구가 매우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어번픽취레스크'의 특성 중 주로 시각적 측면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총체적 경험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동시대 가로에서 의미가 있는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Steinitz, 1968).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시의 가로는 시각적으로 흥미롭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 내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픽취레스크의 개념을 바탕으로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의 등장배경 및 내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이 실제 우리나라 보행가로부터 미적 흥미로움을 유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픽취레스크 개념이 물론 서구에서 생산된 것이기는 하지만 유기적 가로의 공간유형은 동서양에 보편적으로 존재해 온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여겨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미

학적 특성을 픽취레스크의 원리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도시경관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밝히는데도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환경위주의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적 측면³⁾을 같이 고려하는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한 차원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실증적 방식을 통해 도시 가로설계에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의 유용함과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사례 대상지 연구로 나누어진다. 이론적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픽취레스크의 미적 개념과 경관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픽취레스크 개념이 도시가로형태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어번픽취레스크'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Issacs(2000)의 논문을 토대로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았다.

대상지 연구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라고 판단되어지는 가로들을 사례로 '어번픽취레스크'의 개념을 포함하며, 물리적·활동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의 적용가능성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II. 이론적 연구

1. 픽취레스크의 미적 개념과 경관적 특성

우리는 일반적으로 '픽취레스크'를 어원 그대로 '그림과 같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고전주의적, 기하학적인 양식과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는 픽취레스크는 기본적으로 곡선적이고 변화 많은 자연지향적인 양식을 의미하였으나, 이는 픽취레스크의 초기 의미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의미를 확장하게 되었다(김일훈, 1993). 18세기 말, Gilpin, Price, Knight 등을 통해 픽취레스크의 개념은 '거칠음', '복잡함', '다양함', '갑작스런 변화' 등의 특성을 지니는 의미로 이해되었고(마순자, 2000),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기하학적인 정형식 정원을 비판하는 태도에서 나왔으며, '불규칙성', '다양함'을 기본 속성으로 갖추어 공간의 경험을 다채롭게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픽취레스크의 경관적 특성은 기존의 픽취레스크 혹은 풍경 정원에 관한 여러 연구자의 논문을 바탕으로 중복되는 경관적 특성을 도출한 것이다. 18세기 정원가와 픽취레스크 이론가들의 정원 특성 및 추구 양식을 세분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구성요소를 파악한 뒤, 상호 중복되는 특성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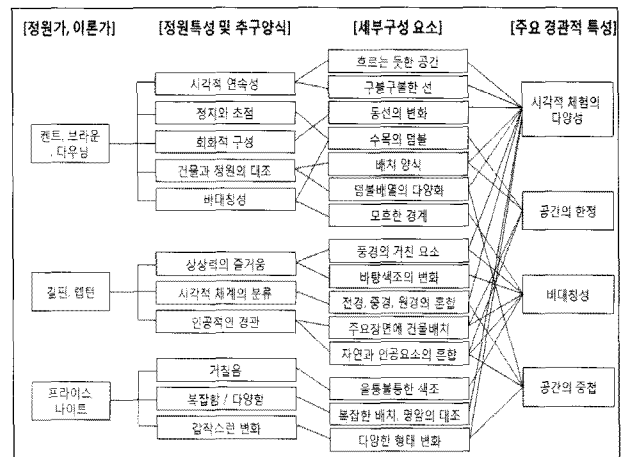


그림 1. 픽취레스크의 경관적 특성

자료: 김진희, 1995; 방경란, 1998; 장용태와 구영민, 2002; 정영선, 1979; 정지운, 2006; 황주영, 2006; Downing, A. J., 1991 등을 참조하여 필자 제작성

합하여 정리하였다. 이로써 나타난 픽취레스크의 경관적 특성은 '시각적 체험의 다양성', '공간의 한정', '비대칭성', '공간의 중첩'으로 도출되었다(그림 1 참조).

18세기 조경가 Capability Brown은 구불구불한 길, 덩굴을 이용한 수풀길, 식재의 색채 대비 효과 등을 통해 정원이용자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고, 경관의 시각적 체험을 다양하게 하였다(방경란, 1998). 초기 픽취레스크 풍의 정원을 구축한 William Kent는 그림 2a와 같이 양쪽에 덩굴로 줄기 부분이 감추어지지 않은 나무들이 있고, 그 사이로 정원 풍경을 관람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황주영, 2006). 또한, 공간을 한정함으로써 인간적인 규모의 공간 환경을 제공하고, 상대적인 거리감에 대한 환영을 갖게 하였다. 또한, Andrew Jackson Downing은 픽취레스크 공간구성을 위한 식재 설계에 있어서 모든 것은 복잡성과 불규칙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수목의 군식은 가장 불규칙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Downing, 1991)(그림 2b 참조). 비대칭이면서도 균형을 갖춘 수목 배치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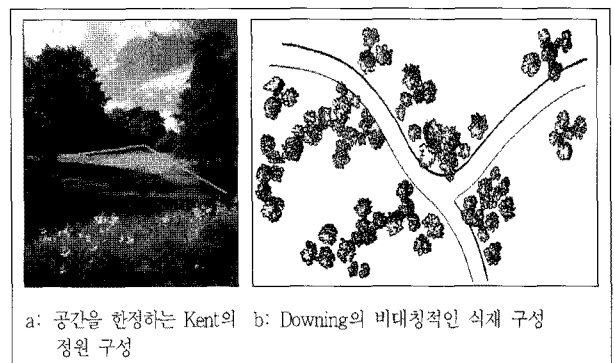


그림 2. 픽취레스크 경관을 이루는 정원구성 방식

자료: a: 황주영, 2006, b: Downing,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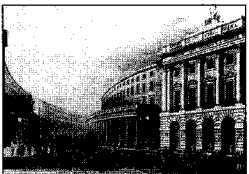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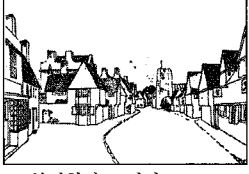

체험자로 하여금 경관의 다양성을 느끼게 하였다. 이처럼 픽춰레스크의 미적 개념은 시간을 통한 공간의 체험을 중시하였고, 이를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공간 및 세부요소를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경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픽춰레스크의 미적 개념은 추후 조경양식뿐 아니라 동시대의 도시공간 구성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김한배, 1998). 정원예술에서 픽춰레스크가 예술을 통해 자연과의 합일(合一)을 추구하였듯이, 도시의 가로공간을 예술적 미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어번픽춰레스크'의 역사적 배경

바로크의 정형성에 대한 회의는 영국을 중심으로 곡선적이고 픽춰레스크한 도시공간설계를 유행하게 하였다. John Nash가 설계한 'Regent Street(1811)'의 곡선형 도로와 광장은 그대표적 예이다(김철수, 1997; 조세환과 정성태, 2002). 이러한 사

표 1. 어번픽춰레스크 개념의 가로 모습

| 구분 | 도시 가로의 모습 | 특징 |
|----------------------|---|---|
| John Nash (1811) |  a: Resent street의 곡선가로 | 가로에서 커브(Curve)는 시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공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함 |
| Camillo Sitte (1889) |  b: 불규칙한 도시형태 | 구불한 성질의 가로로부터 생긴 틈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건물들에 의해서 '픽춰레스크'한 광경을 연출함 |
| Raymond Unwin (1901) |  c: 부정형의 도시미 | 단조로운 직선 도로에 도시미의 결여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중세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부정형의 도시미 |
| Gordon Cullen (1961) |  d: 기대효과 | 공간에 대한 기대효과 혹은 호기심 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시 컨텍스트에 시각적인 연속성 부여 |

자료: a: www.google.com, b: 홍선희, 2001, c: 손세욱, 1998, d: 박기조, 1994

조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비엔나 출신의 Sitte(1889)와 그의 심미적 원칙에 심취한 Unwin(1901)과 Cullen(1961)은 픽춰레스크의 공간개념을 도시공간에 대입시키려 하였다(김한배, 1998). 이들은 하나같이 도시를 활동하는 인간의 체험을 보다 다양하고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표 1 참조).

3. '어번픽춰레스크'의 개념과 특성

'불규칙성(irregularity)', '다양성(variety)'의 속성을 기반으로 한 픽춰레스크 미적 개념은 19세기 도시 형태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이는 곧 '어번픽춰레스크(Urban Picturesque)'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Issacs, 2000). 이 개념은 픽춰레스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도시 형태의 보편적인 미학이 존재하며, '어번픽춰레스크'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보행자들에게 체험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어번픽춰레스크'는 도시공간에 있어 미적 체험을 증대시키는 개념이며, 보행자 가로에서 일부 공간적 형태의 구성은 다른 보행자 가로의 구성보다 좀 더 밀도 있는 경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다(Issacs, 2000). 본 연구에서는 픽춰레스크의 경관특성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도시경관이론에서의 시간성(Cullen, 1961)과 이미지성(Lynch, 1960)을 각각 나타내는 '시작점, 끝점, 혹은 중간점'과 '랜드마크적 요소' 등을 추가하여 다섯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하려는 도시 보행자 가로에서 '어번픽춰레스크'적 특성은 표 2의 내용과 같다.

픽춰레스크의 경관적 특성과 '어번픽춰레스크'적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면(그림 3 참조), 우선 픽춰레스크의 '시각적 체험의 다양성'은 '어번픽춰레스크'의 다섯 가지 특성에 모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어번픽춰레스크'적 특성이 기본적으로 단순화되고 획일적인 가로 패턴에 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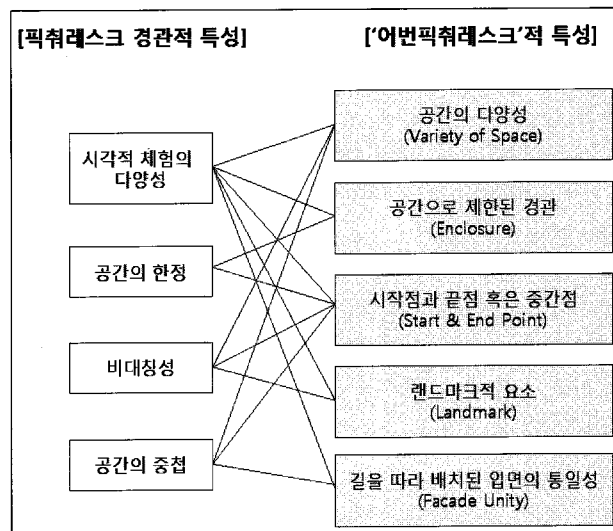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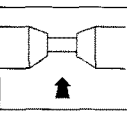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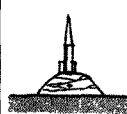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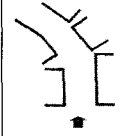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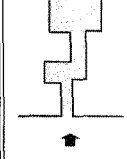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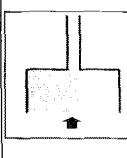


그림 3. 픽춰레스크의 경관적 특성과 '어번픽춰레스크'적 특성의 관계

표 2. '어번픽취레스크'의 경관특성

| 구분 | 형태 | 특징 |
|------------------------------------|---|---|
| 위요된 공간으로 제한된 경관 (Enclosure) |  | 명백한 시각적 차단을 야기하는 폐쇄의 경우와는 달리 둘러싸인 낮은 울타리나 기둥에 의해 둘러싸이므로 폐쇄감이 완화된다. |
| 랜드마크적 요소 (Landmark) |  | 도시를 통과하다 방향을 잃는 경우 특별한 형태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보여 진다면 이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길을 따라 배치된 입면의 통일성 (Facade Unity) |  | 디테일과 표면은 복잡할지라도 전체적인 입면의 구성이 유사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가로공간을 더 일체화된 속성으로 인식하게 해준다. |
| 공간의 다양성 (Variety of Space) |  | 좁은 가로에서 더 넓은 공간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거나 방향을 계속 전환시킨다면, 공간체험을 더욱 흥미롭게 하며 연속적 경관변화와 미스터리 그리고 해방감을 주기도 한다. |
| 시작점과 끝점 혹은 중간점 (Start & End Point) |  | 가로의 소광장 혹은 중앙광장 등은 공간의 시작과 끝 혹은 중간기점을 알려주어 가로의 성격을 분명히 해주며, 공간의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

자료: Issacs, R., 2000; McCluskey, J., 1992 등을 참조하여 필자 재작성

시각적 체험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픽취레스크의 '공간의 한정'은 둘러싸여진 공간으로 인해 다음공간으로의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의 '공간으로 제한된 경관'과 명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며, 또한 '시작점과 끝점 혹은 중간점'의 연결되는 부분으로의 성격 때문에 공간을 한정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픽취레스크의 '비대칭성'은 공간이 대칭되어 확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에 반하는 개념으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 중 '공간의 다양성', '시작점과 끝점', '랜드마크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 이 특성들은 가로공간을 대칭되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비대칭적인 측면들을 갖추고 있다.

픽취레스크의 경관적 특성인 '공간의 중첩'은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 변화가 생기는 공간 등이 동시에 같은 시야에 들어와 공간을 혼합적으로 인식하게 해준다. 이는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 중 '공간의 다양성', '시작점과 끝점', '입면의 통일성'과 관련이 있다. '길을 따라 배치된 입면의 통일성'은 가로공간을 하나의 한정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해주어, 규모가 다른 공간과 연결되었을 때, 공간의 차별성을 주어서 공간이 혼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공간의 다양성'과 '시작점과 끝점'은 주변의 물리적 성격이 다른 공간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특징으로 공간이 중첩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공간의 흥미로움을 제공한다.

III. 대상지 연구

1. 대상지 선정과 조사방법

1) 대상지 선정

대상지는 서울의 보행자 위주 가로 중에서 '어번픽취레스크' 공간 속성에 부합하는 불규칙하고 공간의 변화가 다양하며, 자연발생적인 가로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 자체를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가로에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에 다른 기준방식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어번픽취레스크'의 개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보행 위주의 가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자연발생적인 가로임과 동시에 공간의 속성이 불규칙하고 변화가 있어야 하며, 대가리가 아닌 가로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보행 위주의 소가로, 그리고 앞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진 가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장소는 덕수궁길·인사동길·명동길이다(그림 4 참조). 덕수궁길과 인사동길은 역사·문화지구, 명동길은 상업·업무지구의 가로용도를 지니고 있다.

2) 분석의 틀과 조사방법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의 입장에서 가로를 분석한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 국한되었지만, 도시 내 가로는 다양한 용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 활동적 측면을 포함하는 분석의 틀이 도출되었다(그림 5 참조).

조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첫번째,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물리적 측면의 조사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실외에서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혹은 흥미롭지 않은 공간에 대해 글과 스케치, 가로에서 나타나는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의 표시 및 보행체험 흥미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이 보행체험의 흥미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와 가로별로 나타나는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번째, 일반보행자 그룹을 대상으로



그림 4. 사례 대상지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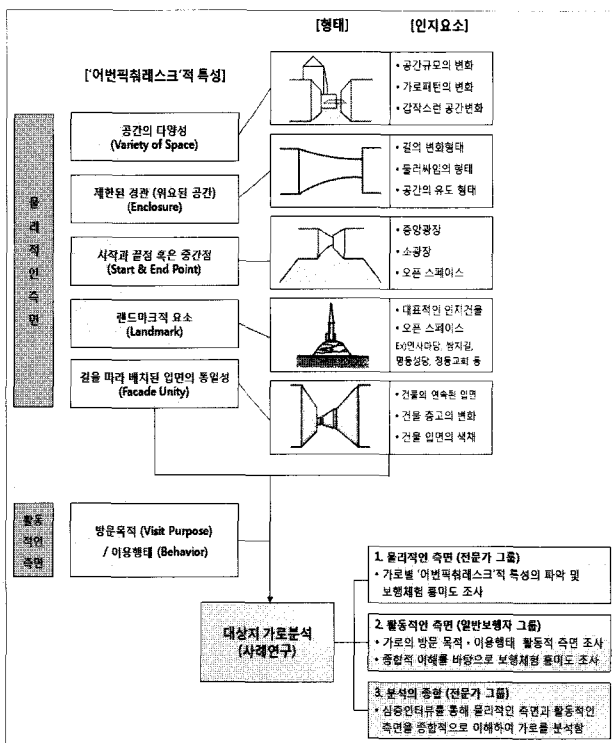


그림 5. 분석의 틀

가로의 방문목적·이용행태 등의 활동적 측면을 조사하고,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행체험 흥미도를 조사하였다. 세번째, 가로의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종합관계 분석을 위해 전문가 그룹의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2. 대상지 조사결과

1) 가로의 물리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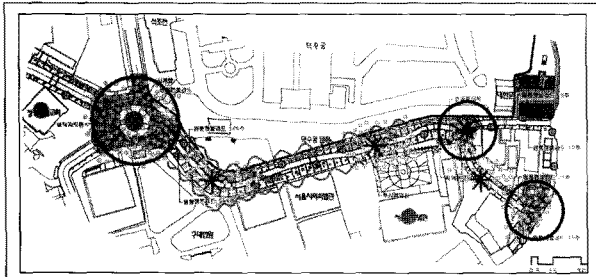
이 조사는 도시공간의 디자인 경험이 있는 조경·건축·도시 전공의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22일(8명), 11월 15일(7명), 22일(5명)에 실시되었다. 전문가는 세 개

의 사례 대상지를 직접 체험하며, 이미지 맵에 그 특성을 표시하였고, 설문에 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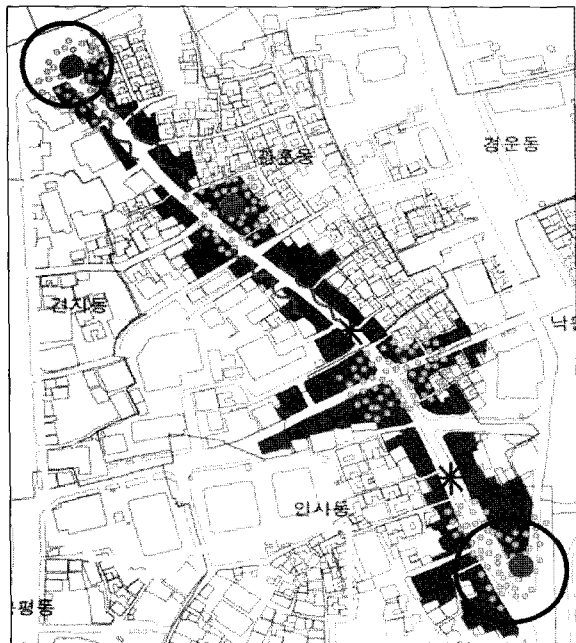
(1) 가로별 어반픽취레스크 특성

가로별 '어반픽취레스크'의 특성은 공간의 변화가 다양할수록 우세하게 나타났다. 덕수궁길(시청역 1번 출구-돌담길-중앙광장)에서는 다섯 가지의 특성이 가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작점과 끝점 혹은 중간점'이 광장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가로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로 형태의 굴곡이 있는 부분에서 '공간으로 제한된 경관'이 나타나고 있다. '공간의 다양성'은 가로 형태의 굴곡이 있는 부분과 광장이 이어지는 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랜드마크적 요소'는 서울시청별관과 정동교회, 그리고 넓은 오픈스페이스가 구성되어 휴식과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는 중앙광장(분수광장)에서 집중되어 나타났다. '입면의 통일성'은 돌담길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곳에 집중되어 나타났다(그림 6a 참조).

인사동길은 S커브 형태의 가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굴곡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선형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에 '어반픽취레스크'적 특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다. 남인사/북인사 마당이 '시작점과 끝점'으로 나타났으며, 인사마당과 쌈지길이 '랜드마크적 요소'로 주로 표시되었다. 가로의 굴곡이 심한 부분에 '공간으로 제한된 경관'의 특성이 존재하였으며, 중간 트이는 부분에 '공간의 다양성'이 표시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덕수궁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면의 통일성'은 북인사마당의 일렬로 배열된 나무식재와 더불어 양측면의 건물층고가 유사하게 자리 잡고 있어 이곳에 집중되어 나타났고, 수도약국 근처 역시 양 측면 건물층고가 유사하여 이곳에 입면의 통일성이 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인사마당 쪽은 유선형의 도로 패턴에 따라 나무를 식재하였고, 건물층고가 다양하여 '입면의 통일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그림 6b 참조).



a: 덕수궁길에서 나타나는 '어번픽취레스크' 특성



b: 인사동길에서 나타나는 '어번픽취레스크' 특성



c: 명동길에서 나타나는 '어번픽취레스크' 특성

그림 6. 가로별 이미지 맵에 표현된 '어번픽취레스크' 특성

범례: * 제한된 경관, ● 랜드마크적 요소, ○ 시작점과 끝점, 공간의 다양성, 입면의 통일성

명동길은 직선의 형태를 이루다가 중간지점 이후부터는 선형의 형태로 나타나는 가로형태를 지니고 있다. 좌측 명동길 초입부분이 시작점, 명동성당 앞이 중간점, 중앙극장 앞이 끝점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바타몰, 명동성당, 카톨릭회관이 '랜드마크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카톨릭회관은 가로 정면에 위치하여 공간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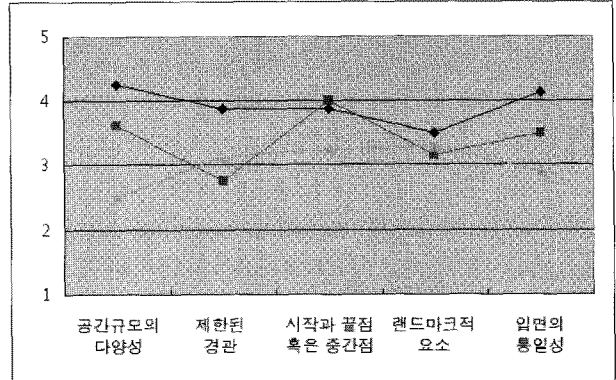


그림 7. 가로별 나타나는 어번픽취레스크 특성

범례: ● 덕수궁길, ■ 인사동길, ▲ 명동길

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다양성' 및 '공간으로 제한된 경관'은 명동성당 앞 오픈스페이스와 중앙극장 쪽으로 나가는 커브길에서 주로 나타났다. '입면의 통일성'은 경미한 수준으로 길 초입부분에 약간 표시되었다(그림 6c 참조).

가로별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이 나타나는 정도를 종합해 보면, 그림 7과 같이 정리된다. 덕수궁길은 전반적으로 '시작과 끝점', '제한된 경관', '입면의 통일성', '공간의 다양성'이 고르게 우세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사동길은 '시작과 끝점', 그리고 '입면의 통일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으며, 명동길은 몇 가지의 특성이 뚜렷이 우세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대체로 '랜드마크적 요소'와 '시작과 끝점'이 보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 보행체험의 시각적 흥미도

보행체험의 시각적 흥미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흥미로운 공간과 흥미롭지 않은 공간에 대한 글과 도안의 묘사를 통해 세부적인 이유를 알아보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보행체험 흥미도를 확인하였다.

덕수궁길의 보행체험(후)의 흥미도는 평균 4.2점으로서 흥미로운 체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곡선적인 도로형태, 좁아졌다 넓어지는 공간의 다양성, 보차의 경계선이 없어 자유로운 보행로 구성, 나무, 담장이라는 특징적인 요소, 그리고 광장으로 유도하는 동선체계 등으로 나타났다.

인사동길의 보행체험(후)의 흥미도는 평균 3.8점으로서 흥미로운 체험에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이유로는 구부러진 가로의 형태, 다양한 상점가와 볼거리, 낮은 층고의 건물들의 연속성, 보행체험에 적합한 가로의 규모 등이라고 하였고, 흥미롭지 않은 이유로는 가로의 시설물들이 보행자의 시야와 보행을 가로막고 있어 보행체험에 불편함을 주는 것 등을 응답하였다.

명동길의 보행체험(후)의 흥미도는 평균 2.4점으로서 세 개

의 가로 중 가장 낮은 값이 나왔으며, 대체로 보행체험이 흥미롭지 않은 것을 말해준다. 흥미로운 이유로는 길이 좁은 부분에서 확 트여진 넓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흥미로우며, 활기 찬 사람들의 움직임이 흥미롭다고 답변하였다. 흥미롭지 않은 이유로는 일부 구간의 직선적인 보행과 나무와 사람, 차 등이 얽혀 있어서 실제의 넓은 가로 폭이 좁게 느껴지고 답답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가 그룹의 가로별 보행체험에 대한 글과 스케치를 살펴본 결과, 도시 가로의 불규칙하고 다양한 속성이 보행체험의 흥미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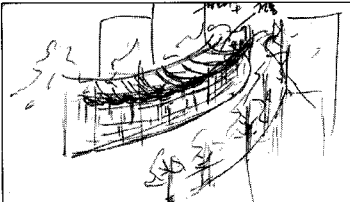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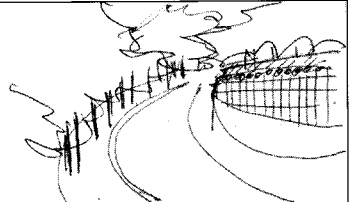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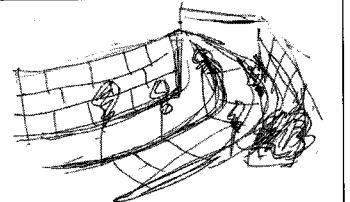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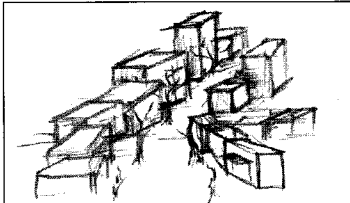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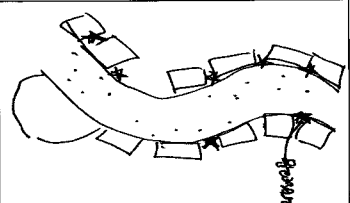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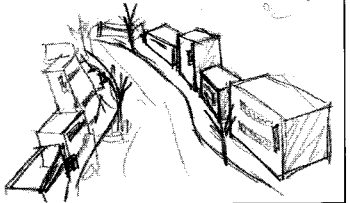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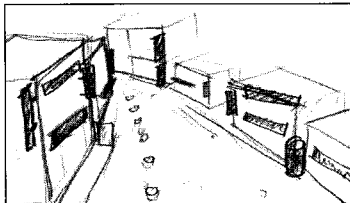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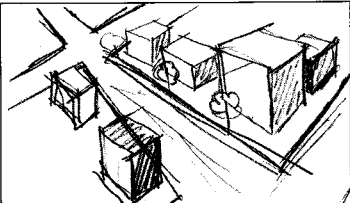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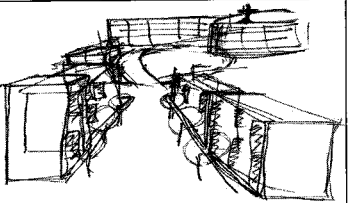
2) 가로의 활동적 측면

이 조사는 실제 가로를 체험하고 있는 일반보행자를 대상으로 2007년 11월 5일~12월 5일 3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가로별 40명씩 총 120명에게 설문하였다. 가로의 방문목적과 가로에서 행해지는 주요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가로의 물리적 환경 안에서 활동적 측면의 요소가 보행체험 흥미도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을 보인 보행자들 중 30여명(가로별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방문목적과 이용행태

가로의 방문목적과 이용행태⁴⁾ 등 활동적 측면에 대한 내용은 그림 8과 표 4의 내용과 같다. 인사동길과 명동길의 방문목적

표 3. 전문가 그룹의 가로별 보행체험

| 구분 | | 가로별 보행체험에 대한 스케치와 이미지설명 | | |
|------|--------|--|--|---|
| 택수궁길 | 스케치 |  |  |  |
| | 이미지 설명 | · P씨, 26세(여), 조경학전공 - 가로의 운치 있는 분위기 - 직선의 가로형태가 아닌 구부러진 루트라서 다음에 펼쳐질 공간이 기대됨 | · H씨, 28세(남), 건축학전공 - 곡선에 의한 보행로 조성, 보도와 도로의 경계가 없어 자유로운 보행체계 - 광장으로 유도하는 동선 등이 흥미로움 | · S씨, 29세(남), 도시공학전공 - 불규칙한 곡선형 가로형태의 흥미로움 - 길을 따라 연계되는 공간의 연속성이 느껴짐 |
| 인사동길 | 스케치 |  |  |  |
| | 이미지 설명 | · L씨, 27세(남), 건축학전공 - 길 위에 늘어선 건물들의 높이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통일된 모습임 - 가로공간의 규모가 인간의 보행에 적합함 | · P씨, 26세(여), 조경학전공 - S커브 형태는 다음 공간의 기대감을 갖게 함 - 가로의 문화적인 요소가 보행체험을 더 즐겁게 함 | · J씨, 28세(남), 조경학전공 - 단조롭지 않은 건물의 모습과 구부러진 가로의 형태가 보행을 유도하고 있음 - 가로의 시설물들이 시야와 보행을 가로막아 불편함을 초래 |
| 명동길 | 스케치 |  |  |  |
| | 이미지 설명 | · P씨, 24세(남), 도시공학전공 - 어지러운 간판, 노점상, 무수히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로가 좁게 느껴짐 - 길 초입부분은 직선적 가로의 단조로움이 느껴짐 | · K씨, 27세(여), 조경학전공 - 가로 공간자체가 매우 정적이고 단조롭지만,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흥미로움을 주기도 함 | · K씨, 27세(여), 조경학전공 - 대체로 직선의 좁은 가로이지만 확 트여진 공간이 나오는 부분은 흥미로움 - 자동차들, 나무, 많은 사람들이 보행체험에 불편을 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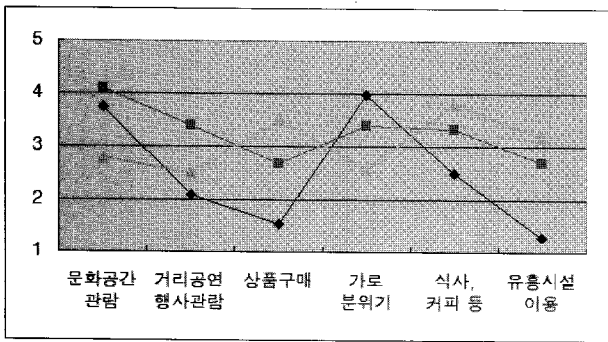


그림 8. 가로별 방문목적

범례: ●— 덕수궁길, ■— 인사동길, ▲— 명동길

표 4. 가로별 이용행태(빈도수 최고값 40)

| 구 분 | 덕수궁길 | | 인사동길 | | 명동길 | |
|--------------------|------|-------|------|-------|-----|-------|
| | 빈도수 | 퍼센트 | 빈도수 | 퍼센트 | 빈도수 | 퍼센트 |
| 단순통과목적의 걷기 | 26 | 29.55 | 20 | 14.08 | 16 | 12.80 |
| 가로 내 시설 이용목적의 걷기 | 8 | 9.09 | 18 | 12.68 | 16 | 12.80 |
| 구경목적의 걷기 | 23 | 26.14 | 35 | 24.65 | 20 | 16.00 |
| 가게에서 물건구매하기 | 0 | 0.00 | 11 | 7.75 | 31 | 24.80 |
| 가로에서 대화하며 휴식하기 | 19 | 21.59 | 14 | 9.86 | 12 | 9.60 |
| 멈추어 서서 구경하기 | 7 | 7.95 | 17 | 11.97 | 11 | 8.80 |
| 앉아서 구경하기 | 4 | 4.55 | 12 | 8.45 | 8 | 6.40 |
| 가로좌판에서 물건, 식품 구매하기 | 1 | 1.14 | 15 | 10.56 | 11 | 8.80 |
| 합계 | 88 | 100 | 142 | 100 | 125 | 100 |

적은 대부분이 고르게 보통의 수준(3점)을 넘어서나, 덕수궁길은 '가로분위기', '문화공간관람'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로별 이용행태의 빈도수는 인사동길(142)-명동길(125)-덕수궁길(88)의 순서로 덕수궁길의 이용행태 빈도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로변의 활동적인 요소의 다양함 혹은 그것의 유무에 따라 이용행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보행체험의 활동적 흥미도

가로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방문목적과 이용행태 등 활동적 측면을 포함하는 보행체험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인사동길(3.75점)-명동길(3.18점)-덕수궁길(2.63점)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표 5 참조). 이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

로 살펴본 물리적인 측면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서 이용행태의 빈도수 순서와 동일하다.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일반보행자 그룹은 가로의 물리적인 측면보다는 활동적 요소에 더 영향을 받아, 보행체험의 흥미도를 나타내었다(표 4, 5, 6 참조).

3) 분석의 종합

가로의 형태에 관한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종합관계 분석을 위해 전문가 그룹의 심층 인터뷰(표 7 참조)를 하였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덕수궁길은 불규칙하고 공간의 변화가 다양한 가로 경관의 모습이 보행자로 하여금 미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나, 가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과이동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보행자 활동을 유발하는 요소(거리전서, 전통적 요소의 불거리·먹을거리 등)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인사동길에서는 가로의 형태뿐 아니라 가로의 활동적 측면의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하여 보행체험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동길이 평균적으로 우세한 보행체험의 흥미도를 나타내는 것은 인사동길이 덕수궁길에서 보이는 가로의 다양한 형태변화의 속성과 명동길에서 보이는 오락시설, 상점, 먹거리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적 측면의 요소, 그리고 가로의 독특하며 전통적인 분위기 등이 복합되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보행체험 흥미도(5점 리커트척도)

| 구 분 | 일반보행자 그룹 | |
|------|----------|-------|
| | 평균값 | 표준편차 |
| 덕수궁길 | 2.63 | 0.540 |
| 인사동길 | 3.75 | 0.707 |
| 명동길 | 3.18 | 0.675 |

표 6. 일반 보행자의 심층인터뷰(2007년 11월)

| 구분 | 인터뷰 내용 |
|------|---|
| 덕수궁길 | 원래는 자주 오지 않지만 시립 미술관 전시를 보기위해 들렀다가 오랜만에 이 길을 걷게 됐어요. 이 길은 평상시에 볼 수 없고 깨끗하고 한적해서 좋아요. 그런데 불거리나 즐길 수 있는 것이 적어서 자주 오게 되지 않아요.(29세 직장인 P씨, 여자). |
| 인사동길 | 오늘 친구랑 전시 보려고 나왔어요. 인사동에 갤러리가 많잖아요. 작은 갤러리나 찻집길 등 불거리가 많아서 좋고 특히 명동이나 종각 근처에 비해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자주 오게 되요. 그리고 전통적인 불거리가 많아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 흥미로워요.(28세 미술전공 대학생, 여자). |
| 명동길 | 길(형태)은 복잡하지 않은데 상점들의 각종 옥외 광고물들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로 인해 거리가 복잡하게 인지되는 것 같습니다. 거리의 생김새보다는 현재의 젊은 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 합니다(35세 회사원 K씨, 남자). |

표 7. 전문가 그룹의 심층인터뷰(2007년 12월)

| 구분 | 인터뷰 내용 |
|------|---|
| 덕수궁길 | 덕수궁길의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공간의 변화와 보행을 유도하는 가로구성은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적으로 매력을 주는 요소 자체만으로 보행체험의 흥미를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덕수궁길이 인사동길보다 공간의 다양성과 불규칙성 등의 성격을 더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보행자들은 인사동길을 더 선호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35세 조경학과 대학원생 K씨, 여자). |
| 인사동길 | 인사동길은 좁고 굽은 가로는 매력적이며, 저층건물들이 연속되어 있어 가로의 공간감을 느끼기 적합하고, 건물전면의 요소(간판 등)도 명동길과 다르게 차별한 모습이다. 인사동길은 덕수궁길과 같이 전통적인 거리이면서 가로 형태의 변화도 대체로 위 유사해 보이지만, 가로변 자체의 사람들의 활동을 유발하는 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거리에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골동품 상점 등이 있어서 가로를 더 특색 있게 하고 있다(28세 도시공학과 대학원생 S씨, 남자). |
| 명동길 | 명동길과 같은 상업가로에서는 형태가 복잡하면 오히려 활동하는데 불편할 것 같다. 가로의 상황이 한눈에 보여야 찾기도 쉽고 움직이기 편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주말 같은 경우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한 방향으로 걸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구불구불 복잡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헤매게 될 것이다.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한눈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이동에 대한 선택권을 주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31세 건축학과 대학원생, L씨, 남자). |

명동길은 상업 위주의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매력적인 가로 형태보다는 활동적인 측면 요소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의 용도 특성상 보행자가 가로공간을 인지하는데 있어 간판, 노점상,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상업점포, 소음 등의 전달력이 높은 요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과 제언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 보행자가로를 대상으로 '어번픽취레스크'적 경관 특성에 따른 물리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도시 가로설계에서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의 유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시각적 환경을 중시한 물리적 측면에서 도시 보행자 가로를 살펴본 결과,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이 많이 나타날수록 보행체험의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반 보행자 그룹을 대상으로 활동적 측면을 포함하여 가로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인 측면만 조사한 경우와는 다르게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의 영향보다는 가로의 활동적 측면의 요소가 보행체험의 흥미도에 더 영향을 주었다. 셋째,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로를 분석한 결과, 도시 환경의 물리적인 형태는 활동적인 요소와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가로의 보행체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대 도시의 보행자 가로에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로의 형태와 더불어 가로상황에 맞는 활동적, 용도적 측면의 요소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이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보행자 가로는 상업 가로보다는 문화 가로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지 연구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명동길과 같은 상업 가로는 거리의 불규칙한 형태의 시각적인 특성 보다는 상점이나 상품의 전달 목적이 중요한 가로이고, 가로의 형태와 간판 등의 요소들이 동시에 인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로의 복잡한 형태가 가로 체험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인사동길과 같은 문화 가로는 사람들의 활동이 일반 상업 가로와는 다르게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가로의 활동과 더불어 미적인 체험이 가능한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픽취레스크가 미적인 개념의 공간적 표현에서 나왔듯이, '어번픽취레스크' 개념이 적용되기에는 상업 가로보다는 문화 가로가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지로 삼은 덕수궁길, 인사동길, 명동길은 가로의 용도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시각적인 환경 변수를 위주로 한 '어번픽취레스크'적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거리의 성격·용도 등이 유사하면서 물리적인 특성이 다른 가로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과 활동적인 측면 이외에 가로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요인들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행자 공간을 흥미롭게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보행자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가로의 유형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번픽취레스크'의 개념이 서구의 환경설계양식에 기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개념의 토착화를 위해서는 동양이나 한국 문화에 기반한 환경적 가치관과 결합된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주 1. 프랑스의 사회학자 David Le Breton은 도시를 걷는 경험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길을 걷는 사람이 자신의 도시, 혹은 가로나 동네와 맺게 되는 관계는 무엇보다 먼저 어떤 정서적 관계인 동시에 신체적 경험이다. 그가 그 도시를 익히 잘 알고 있는 경우든 한발 한발 내딛는 가운데 도시의 길을 차츰 발견해 나가는 경우든 마찬가지다. 도시는 청각적 시각적 배경이 되어 소요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반해준다. 매순간 그의 피부는 변화무쌍한 외계의 기운을 감지 기록하여 물체나 공간과의 접촉에 반응한다. 보행자는 불쾌하거나 유쾌한 냄새들의 응덩이를 통과하는 느낌을 갖는다. 여러 가지 감각들이 울림과 날실처럼 짜여진 이 조직은 그가 가로를 통해 걸어가는 동안 상황에 따라 도시에 유쾌하거나 불쾌한 돈을 부여한다. 도시를 걷는 경험은 우리의 몸 전체의 반응을 촉발한다. 매순간 몸의 센스와 감각들이 끊임없이 작동한다. 도시는 이

리하여 인간의 몸의 밖이 아니라 몸 안에 존재하는 셈이다. 도시는 그의 시선에, 청각에, 그 밖의 다른 감각들에 스며든다. 보행자는 도시를 차츰 길들여 자신의 내면에 흡수 소화하고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도시에 반응한다.”(김화영 역, 2000)

- 주 2. 픽취레스크는 18세기 한 세기를 풍미한 미적 개념이지만 '어번픽취레스크'는 하나의 이론적 틀이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시를 하였다.
- 주 3. 활동적 측면은 보행자의 활동과 관련된 가로 용도/의미/내용 등을 말하며, 이는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유발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주 4. 이용행태의 세부적인 항목구분은 Jan Gehl(1987)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작성하였다.

인용문헌

1. 김진희(1995) 영국 풍경식 정원의 미 '픽취레스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일훈(1993) 18세기 영국의 풍경식 정원과 다양성. 공간(空間)지 93년 5월호, pp. 42-46.
3. 김철수(1997) 도시계획사. 기문당.
4. 김한배(1998) 도시환경설계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사조에 관한 고찰 (I).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33(3): 183-202.
5. 김화영 역(2002) 다비드 르 브르통 산문집 · 전기예찬. David Le Breton, 현대문학.
6. 마순자(2000)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대우학술총서.
7. 방경란(1998) 영국 풍경식 정원이 Capability Brown의 스타일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손세옥(1998) 언원의 부지 계획 기법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학술연구지.
9. 장용태, 구영민(2002) 영국의 18세기 풍경식 정원의 디자인 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8(2): 443-448.

10. 정영선(1979) 서양조경사. 신학사.
11. 정지윤(2006) 18세기 영국 윌리엄 길핀의 픽취레스크 정원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조세환, 정성태(2002) 18세기 풍경식 정원과 픽취레스크의 화두. 건설환경논총(제4호). pp. 149-159.
13. 홍선희(2001) 현대도시건축의 맥락성(Contextuality)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1(2).
14. 황주영(2006) ut pictura hortus: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보 제26집, pp. 181-204.
15. Carmona, M.(2003) Public Places-Urban Spaces: the Dimensions of Urban Design. Architectural Press.
16. Cullen, G.(1961) The Concise Landscape. 박기조(역), 도시경관. 태림문화사, 1994.
17. Downing, A. J(1991) Landscape Gardening and Rural Architecture. New York : Dover Publications.
18. Gehl, J.(1987) Life between buildings. 김진우, 이성미, 한민정(역),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푸른솔, 2003.
19. Halprin, L.(1972) Cities, 최창환, 서의택(역), 도시환경의 미. 명보문화사, 1986.
20. Issacs, R.(2000) The Urban Picturesque: An Aesthetic Experience of Urban Picturesque Places. Journal of Urban Design 5(2): 145-180.
21. Lynch, K.(1960) The Image of City. Cambridge M.I.T. Press.
22. McCluskey, J.(1992) Road Form and Townscape. Architecture Press.
23. Sitte, C.(1889) The Birth of Modern City Planning. 손세옥, 구시은(역), 카밀로 지태의 공간예술론 도시 · 건축 · 미학. 태림문화사, 2000.
24. Steinitz, C.(1968) Meaning and the congruence of urban form and activity.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Journal 34(4): 233-248.

원 고 접 수 일: 2009년 1월 2일
 심 사 일: 2009년 1월 24일
 계 재 확 정 일: 2009년 1월 30일
 3 인 의 명 심 사 필